

## 지역경제일지

11.19. ▶ 경남 수출 연간 증가율 전국 1위,  
무역수지 13개월 연속 흑자 고공행진

- 경남도는 연간 수출증가율이 전국 1위에 오른 데 더해, 10월 무역수지가 24억 7천6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3개월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갔음
  - 10월 경남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7.5% 증가한 43억 2천2백만 달러, 수입은 32.1% 감소한 18억 4천6백만 달러를 기록
  - 주력 품목인 선박 수출이 2021년에 수주한 LNG선 및 컨테이너선이 인도되며(13억 7천만 달러)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에 힘입어 도내 수출이 크게 증가
  - 또한 10월중 한국지엠(GM) 창원공장의 자동차 수출(트랙스 크로스오버 2만 5,048대) 호조와 폴란드로의 FA-50 전투기 및 무기 수출도 경남의 수출 증가에 기여
- 한편 수입은 전체 금액의 25.4%를 차지하는 천연가스(-67.2%)와 석탄(-61.5%) 등 에너지 수입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